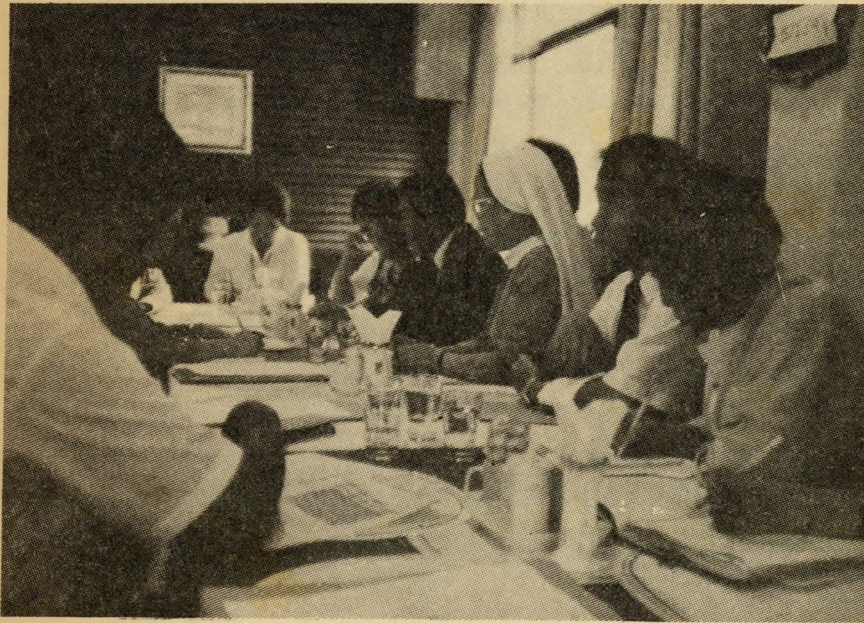


성고문대채위, 신민당의원들 초청 해 간담해 가져



(위 사진은 8월 6일 공대위, 신민간담회의 현장임)

성고문대채위원회는 6일 오전 8시부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신민당소속 내무위·법사문공위 소속 의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20여명이 참석했는데 공대위측에서는 이 소피아수녀, 박영숙회장, 김상근목사, 장성룡목사, 김동완목사등이 참석했고 신민당측에서는 김동주·안동선 내무위 의원, 박찬중법사위의원, 이철문공위의원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 모임은 공대위 및 신민당의 부천시 사건 진상폭로 등을 위한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공대위측

은 국회에서 이 성고문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것을 신민당에 요구했다.

아울러 성고문공대위에서 국회 내무위·법사위·문공위 등에 참여하여 이 사건이 공정하게 논의되는지 지켜볼것을 제의 하였고 신민당측은 이에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아래 기사내용은 6일 성고문공대위와 신민당의원 간담회의 의결에 따라 법사위에 참여한 공대위에 관한 것이다.

성고문사건 진상 폭로...
한내성이 있을수있고 속기
다. 또 반정의 위원장이 어
가를 발악한다. 규정을 어
어 사전 방청석 정리제회를
를보. 이에 박찬중 추문해 후
정리의 제100인 『기대』로 정

최우교전국수녀장연합회
소속수녀 4명과 여성단체연
합성고문대채위 박英淑위원
장을 비롯한 간부 4명.新民
黨民權국장 韓英淑씨등 모
두 12명이 新民黨의 「비호」를
받아 방청석 입장에 「성」
했다.는 보고를받은 柳尙吳위
원장은 회의 시작전 民正黨
의원들을위원장실로 불러모은
뒤 대채위를. 柳위원장은 방
청석용의사를 표시했이나 각
彬 金重輝의원들은 「위세를
가하고는 계획적 행동」을
폭행관계간부를이므로 회의
진행에 방해될 소지가 많다
며 강력히 반대.

현용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
경전을 벌여 1시간 30분이나
지체.

조선 8.7.

聞外聞

◇...이를
제 富川報
사건을 다
문 6일 法
司들은 방
청을 위해
나온 여성
단체관계자
들의 방청
허용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
경전을 벌여 1시간 30분이나
지체.

자.가 아니며 수녀들 가운데는
성교육전문가도 있다. 『소란
을 피우면 그때에 가서 조지
하는 것이지, 사전에 입장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
나』고 지철계 학의.
결국 柳위원장은 『소란을
피우면 퇴장을 시키겠다』고
「사전경고」한뒤 회의를진행.
이후 新民黨의원들이전격
動議한 文寶重경장을 5명에
대한 중의참고인 출석요구결
의안성립여부를 놓고 두차례
정회를 거듭하다가 子正을
넘겨 자동휴회.

富川사건 질의때 吳宗기사만

성고문사건 관련 항의시위 박은미양 구속집행정지

이 8월 4일 구속집행정지 조치를 받고 중앙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도소와 도경국장 등을 방문해 박양의 입원치료를 인도적인 견지에서 요구했었다.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심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인도적 서디를 표하였다.

하이첸 · 이산스버츨라트 등 8월 1일 박음미

한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하였었다.

~~~~~

8 이 썼다고 붙이고 안거니 인연상황에 대한 구절을 표명했다.

공해 받았다.

것들이 일어났다. 448은 정부검열이 이 교단에 정월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고 말했다.

있나 고 기쁘게는 알았다.

국무성은 “한국의 민주화 진전은 거리의 대결이 아닌 평화적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세력은 “폭력의 사용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무성은 “미국은 평화로운 집회권리에 대한 어떤 침해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원주교도소 내 양심수 2명 자살기도

85년 7월 18일 ‘민추위’(‘깃발’)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안병룡씨( )가 교도소측의 극렬한 인권침해에 항의, 6일 음독자살을 기도하였으며 김진한(동서가구 해고근로자·인하대 공대졸·86년 3월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씨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기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중태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구속자 가족들과 조승형변호사는 7일 새벽 원주교도소로 떠났다.

원주교도소 수감중인 양심수들은 지난 7월 18일 원주교도소 보안과 주임의 부당한 구타에 항의하여 최성일씨(민정연수원 점거사건으로 구속, ) 등 3명을 대표로 하는 「재소자 권익 쟁취투쟁위원회」의 이름으로 “재소자 권익 보장하라”등을 주장하며 소내 투쟁을 계속 전개해 왔었다.

한편, 청주교도소에서도 지난 6월 26일 교도소내 차별대우 시정, 면회 제한 철폐 등의 정당한 주장을 했다가 7명이 무차별 폭행과 전신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에 항의하던 오맥균씨(4.27 판련)가 발바닥에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6월 29일에는 김재수씨와 유영길씨가 동맥절단을 시도, 중상을 입었다.

#### 성공회 서울교구 및 정의실천 사제단, 철야농성가져

대한성공회 정의실천 사제단(주교:김성수(시몬))은 2일오후 3시부터 성공회대성당에서 7.27 성고문 규탄기도회 방해에 따른 경찰의 성직자폭행 및 사제관 난입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각 교회에서 성고문 및 폭력추방, 시국문제에 대한 기도를 매일 갖도록 요청키로 한다. △15일에는 서울대성당에서 전체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1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한 철야기도 및 농성에 많은 성직자들이 참여, 지원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회의를 마친후 대한성공회정의실천사제단 등 5개단체 명의로 된 「살인·강간정권의 야만적 폭력성을 규탄한다」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현 군사독재정권은 지난 7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성고문규탄 기도회 및 폭로대회를 잔인한 폭력으로 저지하려 하였으며, 심지어는 성직자를 폭행하고 신도 및 시민들을 연행·폭행하는 마수를 또 다시 드러내었다.”고 규탄 하였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매관자본과 결탁하고 민중을 기만하고, 이 땅의 모든 민주화운동을 폭력과 고문으로 말살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당에 난입·기물을 파괴하고, 성직자를 폭행한 폭력경찰 및 관련책임자를 색출, 파면하라 등 4개항을 결의했다. 한편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대한성공회 민주화실현 청년협의회는 「교우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은 지난 27일 성공회폭행사건(인권소식 209호 참조)에대해 “이 모든 것은 이제껏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과 성고문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선교와 성자의 양심적인 행위도 폭력으로 감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 “저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현지의 민주화일정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 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국민들에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저들의 악행은 79년 YH사건 당시 김정숙양을 추락사하게 만든것이 상징적으로 박정권의 종말을 갖고 온것처럼 현재의 성고문은 현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의로운 소명을 다하기 위해 섰는 싸움에 끝까지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교우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교구 사제단 25명의 신부는 회의가 끝난후 대한성공회 정의실현 청년협의회 소속 청년 약 40

여명과 함께 성고문및 성전난입 규탄 철야 기도회를 갖고 대성당에서 무기한 단식철야농성에 돌입하였으며 선교자유 탄압, 내무부장관의 공식사과 및 남대문 경찰서장 엄벌등을 요구하였다.

농성중 2일 청년들은 기도회가 끝난후 햇불을 들고 “독재정권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 동안 시위를 하며 남대문서로 평화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인하여 대성당정문에서 대치하다가 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농성을 무기한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성공회대성당에서 7월 27일 전경에게 폭행당해 18바늘을 꿰맨 김기호씨 (EYC 실무자)가 남대문경찰서장 정보과장 남대문서 소속미상의 사복전경 수 명 등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 천주교정의사회구현사제단, 민주화와 인권회복을위한 미사

천주교정의사회구현사제단은 8월 4일 오후 7시 홍제동천주교회에서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9일기도 청원미사」를 드렸다. 미사는 12일까지 9일동안 전국성당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7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의 강론은 안충석신부님 (아현동성당)이, 미사후 부천시 성고문사건의 검찰 허위 발표에 대한 폭로는 김상철변호사가, 상계동 173번지의 강제 철거 만행에 대한 보고는 제정구씨 (천사협)가 각각 맡았다. 주민들 50여명은 오후 9시 20분경부터 교회본당 앞에서 ‘살인행위 강제철거 즉각중지하라’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으며 이어 민교협탄압 사례보고 후 10시경 기도회가 끝났다.

상계동 세입자 가족일동은 이날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고발문」을 발표, △살인행위 강제철거 즉각 중지하라! △빈민터진 앓아가는 재개발법 철폐하라! 등 5개항을 주장했다. 또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이날 미사를 마치면서 「이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거듭 호소한다」제하의 성명을 발표, △민주화 없이 합의개헌은 있을 수 없다. 민주화에 대한 의심없는 합의의 증거로서 정치범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과 사면·복권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천시 성고문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것이며 성고문사건과 같은 극도의 비인간적 행위를 추방하려는 노력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서의 구속과 수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7개항을 주장했다.

#### 불법연행되었던 권양 친구들 구속

지난 7월 5일경 성고문사건 권양의 주변 친구 혹은 선후배등 십여명이 불법 연행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연행자중 이희영·송미경·채광희씨가 7월 25일자로 정확한 사건 내막도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성동구치소와 서대문 구치소에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가족은 아직도 면회조차 되지않고 있으며 사건의 내막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충북기청협 등, 「폭력추방기도회」가져

충북 기독교청년협의회는 8월 6일 청주시산업선교회에서 120여명이 참석, 「폭력추방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청주교도소의 인권탄압사건, 신진·중원택시 조합장 부당해고 사건, 한우(주) 부당해고 사건, 기청협 의장에 대한 경찰폭력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등의 탄압사례 보고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후 가두에 진출하여 폭력추방을 위한 행진을 하였고 시내중앙로에서 성고문 고발장 등 유인물을 청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 연극 관람한 노동자 해고시켜

극단 「천지연」은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산선에서 구로연투를 다룬 내용의 「선봉에 서서」라는 워크숍 공연을 했다. 그 연극관람을 했다는 이유로 부평의 「코오롱」근로자 3명이 강제 해고를 당하고 1명은 출근투쟁중이라고 한다.

#### 유상덕씨등 6명 석방촉구 농성, 성명발표

유상덕씨(민주교육실천협 사무국장)등 6명의 불법연행, 구금과 관련 유국장의 가족, 민주교육실천협 소속교사들 등 20여명은 8월 5일부터 8일 현재까지 “민주교육 탄압중지” “유국장 등 6명 즉각 석방”등을 요구하며 NCC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행자 가족일동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상덕씨등 6명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된 이 후 저희 가족들은 그동안의 상황으로 보아 또 하나의 용공조작 사건이 진행되는 듯하여 내심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며 당국의 작성을 촉구하고 또 다시 용공조작이 자행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국장은 지난 7월 15일 안기부로 연행되었으며 그에 앞서 이병철교수( ), 임석희씨( ) 안재학씨( ), 조희정씨( ) 등 4명이 7일 안기부로 각각 연행되었으며 정인학씨(출업, )도 15일 안기부로 연행되었다.

이와 관련 민교협에서는 7월 15일 이후로 계속 25~30여명이 농성을 벌여왔으며 28일 민교협 명의로 ‘민주교육 탄압말라’, ‘유상덕씨를 즉각 석방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 30일에는 서울사대 지리교육과 학생들이 성명을 발표하였고 민언협등 6개 문화단체회원 80여명이 농성을 벌였으며 6개문화단체 명의로 31일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병철교수, 임석희씨, 정인학씨등 3명은 29일자로 국보법위반혐의로 영장이 각각 발부되었다.

#### 목동지역문제, 아직도 심각

현 투기정권의 무분별한 도시재개발 정책으로 시행된 목동공영개발은 84년 8월 27일 주민 1000여명이 양화교를 점거, 시위한 사건과 85년 3월 19일 부구청장 연금및 방화사건으로 사회문제화 되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 정권의 토지 수용령에 의한 공권력 남용과 주민의 생존권 위면, 사유재산 강탈은 지역주민들과 종교계및 온 국민의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목동에서는 가옥주, 토지주 18가구가 사유재산을 지키려하는 피나는 투쟁을 3년동안 벌이고 있다. 20년전부터 피와 땀으로 마련한 땅과 재산을 공영개발 협의보상이란 간판을 크게 걸어놓고 선량한 주민의 정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심지어는 유언비어라고 하여 구류처분당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1조원이상의 이익을 남기면서 ① 14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의견서를 받고 토지소유자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국토건설 촉진법 20조, 21조) ② 세목고시를 안하고 토지감정, 토지측량은 할수없다. ③ 성실한 보상협의 등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를 무시할수없다는 3가지 법조문을 무시하고 일방적통고문 형식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 즉 현시가가 평당 150 - 200 만원을 훔가하는데도 감정가에 의해 평당 6 - 12만원만 보상받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유재산의 강탈및 수탈에 저항하는 30가구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오히려 1000 가구중의 2%라하여 조롱하고 놀리고 있다고 한다.

목동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한 목동공영개발 가처분항고가 성사되도록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추녀위까지 묻혀버린 흙더미 속에서 생존의 대책을 주장하며 각계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 시청료 거부운동 가두캠페인 계속 전개

KBS-TV 시청료 거부운동을 위한 전국 가두캠페인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시행된 것을 시발로 부산·대구·대전·당진·춘천·이리·광주 등지에서 전단과 스티카를 나누어주며 언론자유회복과 시민권리쟁취를 촉구하였다. 특히 수원에서는 7월 29일 30여분간 시내를 돌며 시위를 했고, 대전에서는 7월 27일 가두서명을 받으며 통합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고, 광주에서는 7월 29일 도청앞에서 제지하는 경찰과 맞부딪쳐서 4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 경북농회원 오정섭씨 수사의뢰 취하 불구, 계속구속중

지난 7월 27일 경북상주군 기독교농민회 회원 오정섭씨( )가 상주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오씨의 구속 사유는 지난 7월 5일에서 10일까지 이 마을에서 농촌활동을 온 대학생들에 대해 이 마을의 배영국민학교 교장인 고문산씨가 국민학생들을 시켜 이들의 연행일체를 신고케한데 항의, 규탄대행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그후 상주 봉강마을 대학생 농촌활동단압의 당사자인 교장이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자신이 제출한 수사의뢰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일 오씨가 상주지원에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부결시켜 계속 구속중에 있다.

#### KBS-TV 시청료 거부 및 부친경찰서 성고문 규탄대회 무산으로 농성-이리

이리인권선교협의회와 이리기독교청년협의회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 이리역 광장에서 KBS-TV 시청료거부 및 부친경찰서의 권양 성고문 규탄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규탄대회가 시작되는 순간 1,000여명의 정·사부 경찰들에 의해 은명기복사 등 20여명의 성직자 및 청년들이 강제 연행되어 대회는 무산되었다.

연행된 성직자들이 경찰차에 탑승한채 하차를 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하자 이에 놀란 경찰들은 성직자들을 실은 차를 이리 복음교회 앞에 정차시킨 후 도주하였다.

은명기복사를 비롯한 연행자들은 경찰폭력을 규탄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 참석자들중 합세하여 26일밤 철야농성을 벌였으며 27일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했다가 28일 오전부터 다시 농성에 돌입해 오후 4시경 약 150여명의 목회자, 청년신도들은 “부친경찰서 성고문을 규탄한다” 라고 적힌 프랑카드를 앞세우고 이리경찰서를 향해 700m가량 시가행진을 하고 경찰서 앞에서 연좌하며 성고문 및 경찰폭력을 규탄, 경찰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8일 전북인권선교협등 5개 민주단체 주최로 「성고문·용공조작·폭력정권 규탄대회를 범도민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의한후 해산했다.

#### 충북 6개민주단체, 경찰폭력규탄 성명

충북기독교청년협의회 등 충북지역 6개 민주운동단체들은 지난 7월 27일 청주서부경찰서 박광일형사가 7월 23일 충북기독교청년연합회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기청협수석위원장 김성구씨를 구타한 사건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물파손과 폭력을 휘두른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즉각 징계처벌하라!” 등 3개항을 주장했다.

#### 서울 미술공동체 등 성명발표-정릉 「민중벽화」 파괴사건

서울 미술공동체 회원들은 8월 3일 정릉 「민중벽화」 파괴 및 화가입건과 관련 미술공동체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3일에는 벽화제작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4일, 민족미술협의회 도시벽화 문제대책위원회도 비슷한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본 협의회는 최근 가중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국면 속에서 화가 이은홍씨의 구속과 신촌벽화 파괴 등을 목도 했었다. 이 명백한 불법적 미술탄압이 미술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의 일환임을 확인케된 지금 또다시 화가 당사자의 집 담벽에 제작되던 작품 ‘상생도’의 폭력적 파괴를 접하게 된것이다.”라며 예술 창작물에 대한 이러한 당국의 자의적 판단과 폭력적 파괴는 분명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동사무소, 구청, 경찰의 무분별한 행위는 사유재산에 대한 분명한 침해이다.”라고 밝히고 “유연복씨등 4명의 화가를 즉각 석방하라”등 4개항을 주장했다.

지난 26일부터 미술공동체 회원인 유연복씨는 모교인 홍대 서양화과 동문 4명과 함께 정릉2동 소재 자택 담벽에 벽화제작을 시작했는데 성북경찰서 측은 8월 2일 성북구청직원, 성북서전경 1개소대와 6대의 차를 동원, 70여명이 강제로 벽화를 파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벽화제작자, 미술공동체회원 등과 한때 실랑이가 빚어졌었다. 2일 제작자 5명이 벽화복구를 시작, 3일 다시 파괴되고 제작자들이 강제 연행되었다가 4일 입건되었으며, 6일현재 불구속입건된 상태이다.

당국은 “벽화에 왜 하필이면 진달래꽃이 들어갔느냐”고 트집을 잡았으며 춤추는 남녀농부의 벽화는 “민중혁명의 표상인 해방춤이다.”또 “춤추는 농부 벽화의 뒷 배경중 윗 부분인 붉은 색이 아래로 약간 내려온 것은 적화통일을 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냐”는 등의 터무니 없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유씨는 오래전부터 벽화제작에 대한 소망을 가져왔으며 마침 벽도 낡았고 20여년간 살아온 동네에서 자신이 수업해온 솜씨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함이었으며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 40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신노동자 김남용씨

지난 6월 21일 회사사무실에서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와 (배차 이동)인간적인 멸시에 분신으로 항거한 전북여객주식회사 김남용씨( )는 40일째 예수병원 중환자실에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당황한 회사측과 당국은 정보요원을 병원 환자앞에 상주시켜 외부인과의 면회를 일체 금하고 있으며 의사나 간호원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병문안을 하려던 목사·신부·민주인사들을 가족들로 하여금 문전에서 쫓아내게하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김남용씨를 살리기 위한 구명위원회(위원장:은명기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차례에 걸쳐 전단(구명회보)을 만들고 가두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시 위

【서울대·고대생 300여명】 서울대 고려대 학생등 3백여명은 2일 오후 구로구 개봉2동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서울대 자민투 명의의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유인물을 통해 △미제의 정치음모 개헌특위 분쇄하자. △양담배 수입 강요하는 미국인들을 몰아내자. △미제의 경제침략 저지하여 자립경제 이룩하자. △현정권과 타협하는 신민당은 작성하라는 등의 7개항을 주장했다. 이 날 시위로 전경 호송버스 한대의 내부가 전소되었으며 다수의 학생과 전경이 부상했다.

【경희대생】 1일 오후 종로2가에서 경희대생 안필준씨( )등 4명이 「성고문 타도」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9개대생 1천여명】 서울대, 고대 등 9개대생 1천여명이 1일 오후 고대본관 앞 광장에 모여 「민중기만하는 헌법특위 분쇄와 미제의 경제침탈 저지를 위한 애국청년학도 총궐기대회」를 갖고 성

조기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 날 「애국 청년학도 공동투쟁선언문」 등 4 종류의 유인물을 통해 자민투·민민투의 관념이론 논쟁을 종식하고 조국과 민중을 위해 실천투쟁을 해 나갈것"을 밝히고 △헌특분쇄 △경제침략 자행하는 미제축출 등 10개항을 주장했다. 이 날 시위중 이왕재씨( )가 최루탄에 맞아 오른팔이 부러지는 등 학생 12명이 다쳤다.

【경희대생 1백명】 경희대생 1백여명은 31일 교내에서 「성고문 및 수입개방 저지 실천규탄대회」를 갖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상계동파출소 앞】 3일 오후 상계동 파출소 앞에서 고대생 등 17개대생 2백여명이 “철거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명동성당청년연합회회원】 명청연합회원 60 여명은 2일 오후 명동성당 입구에서 “수입개방 강요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5개대생 2백여명】 성대등 5개대생 2백여명은 4일 성대문과대 앞에서 전 민민학련 북부지역평의회를 가지 뒤 격렬한 교내시위를 벌였다.

△ 8월 7일 오후 2시 30 분경 대성고무노동자 50 여명이 “노동자의 생존권 보상하라” “한일합섬은 작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구 속

【상계동 전철역 앞 시위】 김현욱( )씨가 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태능경찰서에 구속.

선 고

|                        |                        |
|------------------------|------------------------|
| 김경숙( ) - 징 1년          | 홍성관( ) - 징 1년 집유 2년    |
| 온태희( ) - 징 1년 6월 집유 2년 | 김경식( ) - " "           |
| 송민정( ) - 징 1년 집유 2년    | 문미숙( ) - 징 1년 6월 집유 2년 |
| 김교홍( ) - " "           | 최인호( ) - " "           |
| 강성중( ) - " "           | 신정기( ) - 징 1년 집유 2년    |
| 이병철( ) - 징 1년          | 이상용( ) - " "           |
| 장순용( ) - 징 1년 6월 집유 2년 | 김진균( ) - " "           |
| 황효정( ) - 징 1년 집유 2년    |                        |

【민통련 정책연구실장】 장기표씨( ) 수감중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알림】

△ 기독교청년협의회(EYC) 사무실이 706호에서 810호로 이전.

△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는 8월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하여 회장에 박신철씨(서울대)의 모친인 임기란씨를 선임.

△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부산지구 EYC, 인권위 등은 오는 8월 10일 (일) 오후 7시 부산시 보수동 중부교회(기장)에서 「성고문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

석 방

△8·15 석방자 34명중 확인된 2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현석 : ( ), 이강백 : ( ), 손영진 : ( )  
윤성주 : ( ), 유덕준 : ( ), 최은혁 : ( )  
( ), 권형곤 : ( ), 신창규 : ( ), 김진택 : ( )  
( ), 오제현 : ( ), 공계진 : ( ), 홍경희 ( )  
( ), 김희식 : ( ), 이미욱 : ( ), 장재욱 : ( )  
( ), 양봉식 : ( ), 조인규 : ( ), 심선우  
: ( ), 장동환 : ( ), 박경숙 : ( )  
( ), 김기나 : ( ), 김재순 : ( ), 조갑덕 : ( )  
( ), 김지희 : ( ), 최인순 : ( ), 김은숙 : ( )  
( ) 조성환, 이상철 ( )

(민중덕씨 공판 법정구속) 장옥자

(신흥정밀입투)

(수출공단본부 점거농성)

송석영 강문영 김행기

이형범

(현대건설. 철구사업부) 장훈렬

(선창산업입투) 최용석

(통일산업입투) 이영국 박성철

구 속

△이희영 ( ), 송미경 ( ), 권명옥 ( ), 최광희 ( ) 등  
4명 7/25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이태원 시위]·나인 ( ) 씨등 서강대생 3명이 14일구속

저희 인권소식은 무료배부합니다.

그러나 이의 제작과 발송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소식을 받아 볼수 있게 하기 위하여 후  
원해 주실분은 다음 구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동 완)

「고문·성고문 용공조작 범국민폭로대회」가 전국적으로 확산·개최되고 이를 규탄하는 여론이 드높은 가운데 동아일보기자가 권양의 부친을 만나 부친의 바람과 안타까운 심정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窓



## 아버지의 심경

신민당과 재야주최의 「고문·성고문 용공조작범국민폭로대회」가 신민당에서 열린 다음날인 15일 아침 「富川」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인 權양(23)의 아버지(57)를 江原道原州 시내 자택으로 찾아갔다.

그 사건이 표면화된 이래 대문을 굳게 닫고 전화코드마저 뽑아놓은 채 외부와 절연 하다가 지난해 權씨는 다소 안정을 되찾은 듯 지난 1월부터는 새로 마련한 직장 에 출근하고 있었다.

기자가 權양의 아버지를 찾아간 것은 이번이 네 번째.

부만은 못만났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신민당이 재야측의 「성고문투쟁단」에 대해 새삼스레 부모의 심정을 돌이킨 것은 아니다. 아버지 權씨가 먼저 「속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시 權씨를 찾게 된 것이다.

權씨는 지난달 23일 東亞日報에 아버지로써 간절한 호소를 담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權씨 부부는 딸아가 겪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애써 잊기 위해 「만자의 요행」을 나서 江原道平昌군龍坪면의 한 약수터 산장에 머물면서 평범한 아버로서의 삶을 지내왔다.

간절한 소망을 담은 호소문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불한 여식으로 인해 사회규제에 벗어난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심신한 사죄의 뜻을 표합니다」로 시작된 호소문은 「성고문 사건이란 천천천천의 소식이 전해왔을 때 폭악으로 분노와 수치심의 온몸을 떨 어야 했습니다」고 충격의 일단을 피력했다.

權양부부는 「할수만 있다면 못한 여식과 함께 세상을 등지고 싶음」 다음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불충한 여식의 인을 잊어달라」고 부모로서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놓기도 했다.

### 「富川뽕사건」 충격의 權양 부모

“세상 사람들 모두 잊어주기를...”

일주일이 멀쩡 멀쩡 뛰는 걸 보고도 장래를 생각해 文형사를 고소하는 것을 극력 만류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權씨는 「이런 걸 전부 「작은 거짓말」도 하지 못하는 딸아이의 전성을 너무 잘 알아 더욱 괴로웠다」고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참담함과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다.

요즘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는 權씨는 「딸사건에 한의해 仁川지검에 반박하려면 세명의 고위대호생들이 구속된 일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며 「딸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있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딸이 풀려나오면 품에 고이 안고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하는 權씨는 「중고교를 수석으로 나온 자랑스런 딸아가 왜 이렇게까지 좌절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딸아이의 일을 제발 잊어주었으면 하는 權양부부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갖는 심각성 때문에 쉽게 잠재워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原州에서 돌아오는 기자의 마음을 무겁기만 했다.

「정치가 바로해서 학생들의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權씨의 편견이 조차한 「한미디」에서 權씨가 정의, 비의 이時代의 소산임을 느끼게 했다.

△原州 權順澤기자